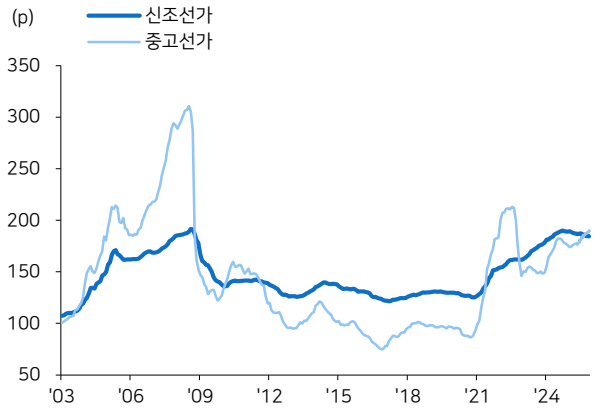
2025. 12. 3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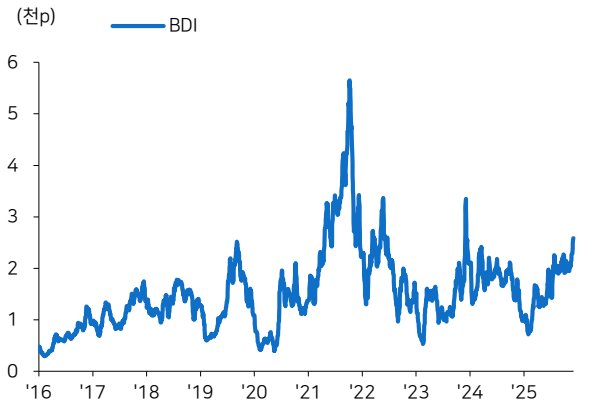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3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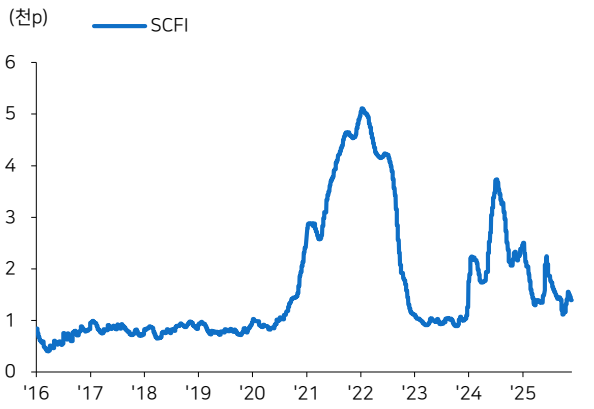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79.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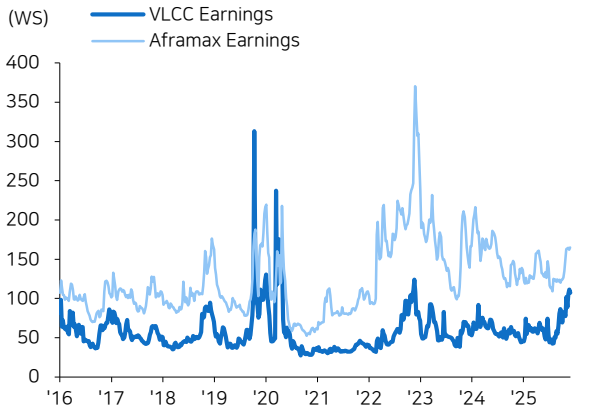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83.0p (+2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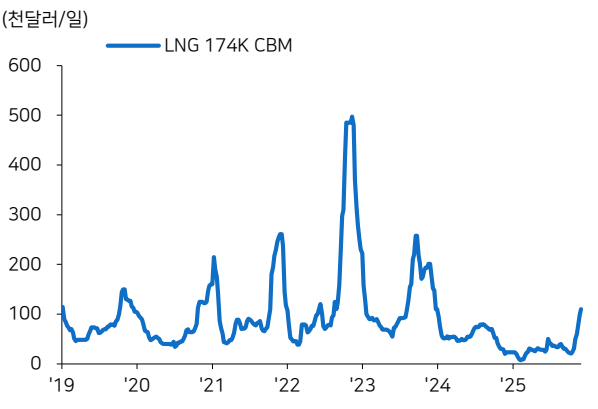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03.1p (+9.6p WoW)



VLCC Spot Rate 107.2WS (-4.0p WoW)



LNG Spot 운임 110.0천달러 (+11.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미, 원자력·조선·핵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가동 합의 — 매일경제

외교부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조치로 원자력 · 조선 · 핵추진잠수함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전해짐. 한미가 팩트시트 이행 채널 구축에 합의하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으며 기업인 비자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짐. (https://buly.kr/9MRaMVF)

Hanwha Ocean bags second VLCC order in two weeks — TradeWinds

한화오션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VLCC 2척을 3,753억원 규모로 수주했으며, 인도는 2028년 12월 31일로 예정됐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으로 한화오션의 연간 수주액은 79억6,000만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는 올해 세 번째로 큰 수주이자 두 번째로 큰 탱커 수주라고 전해짐. VLCC 시장이 일일 10만달러를 넘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그리스 Maran Tankers의 4척 발주도 이어졌다고 알려짐. (https://buly.kr/C0Ax8St)

HD Hyundai wins LNG carrier order from Asian shipowner — TradeWinds

HD현대가 아시아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1척(3,672억원)을 수주해 2028년 12월 31일 인도할 예정이며, 선박은 HD현대삼호에서 건조된다고 보도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신조선은 현대글로비스를 위한 건으로, 현대글로비스는 지난주 약 5,800억원 규모의 15년 장기용선 확보 후 174,000cbm LNG 운반선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고 알려짐.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18척 · 165억2,000만달러 수주로 연간 목표의 91.5%를 채웠다고 전해짐. (https://buly.kr/FLZLm66)

Mozambique LNG partners to stump up extra funds for project — Upstream

TotalEnergies와 Mozambique LNG 파트너들이 영국 UKEF와 네덜란드 Atradius의 총 22억6,000만달러 규모 금융 지원 철회 이후 부족 자금을 지분투자로 보완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불가항력 해제 후 대주단과 수정된 금융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수출신용기관이 약속을 재확인하지 않자 이들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짐. TotalEnergies는 프로젝트에 26.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Mitsui · ONGC Videsh · Bharat · Oil India · PTTEP · ENH 등이 파트너사로 알려짐. (https://buly.kr/B7bALS0)

Green methanol is too expensive and not available at scale, says DNV — TradeWinds

DNV에 따르면 메탄올 사용 가능 선박인 450척 이상의 대부분이 그린 메탄올 부족과 높은 가격 때문에 여전히 연료유 또는 회색 메탄올을 사용한다고 보도됨.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은 84척, 발주된 선박은 367척으로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이며, 한편 그린 메탄올 생산은 연간 220만톤에 그쳐 2040년 예상 수요 6,000만톤에 크게 못 미친다고 알려짐. 그린 메탄올 공급 제약 속에 AP Moller-Maersk와 같은 일부 선주들은 메탄올-에탄올 혼합 연료 시험에 나서고 있으며, WinGD를 포함한 엔진 제조사들에 따르면 소규모 수정만으로도 메탄올 듀얼연료 엔진에 에탄올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4QoN4n3)

Eni achieves West Africa FLNG start-up with first exports due in early 2026 — Upstream

이탈리아 Eni가 콩고 해상에서 Nguya FLNG 프로젝트 2단계를 가동했으며 첫 수출은 내년 초 예상된다고 보도됨. 신규 Nguya FLNG는 연간 240만톤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45,000㎥ LNG 탱크 4기와 탄소 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첨단 액화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짐. Tango FLNG는 연간 60만톤 처리용량을 갖고 있어 두 유닛은 합산 연간 300만톤, 즉 연간 45억㎥의 액화능력을 보유한다고 전해짐. (https://buly.kr/GP3temK)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